

불자 세상보기



성태웅 건국대 철학과 교수

선거가 끝났다. 선거란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인 법. 승자의 기쁨과 패자의 슬픔이 교차하는 마당이다. 그러나 단지 기뻐하기만 하고 또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기쁨과 슬픔 속에는 반드시 반성이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핸드폰으로 전송되어 오는 문자 메시지들... 그 속에는 패자들로 부터 오는 문자들이 더 눈에 띄었다. 패했음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다음에는 더욱 선전할 것을 다짐하는 그 메시지들 속에서 조그만 희망을 발견했다면 좀 지나친 일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패배는 앞으로의 승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패자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다르면서도 같음’ 알자

승자들도 또한 한 때의 승리에 도취해서 무분별한 폭주를 하지는 않으리라.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절감하는 선거를 겪은 뒤이기에 더더욱 다음의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세를 갖추리라. 이런 기대를 해 보게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마음의 장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태도일 것이다. 북한이라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또 완전히 없애야 될 적으로 설정된 존재와 대치한 긴 세월... 그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자신과 다른 존재는 무조건 악이고 없애야 될 존재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것이 정치에도 반영되어 가장 저열한 수준의 정치판을 만들어 낸 세월이 또 길다. 이제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 서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한번 한번의 선거를 치룰 갈 때마다 그러한 희망적인 모습이 드러나야만 한다. 앞에서 조그만 일들을 벌리로 하여 희망을 이야기 한 것은 그러한 바람에서이다.

<주역>에 보면 '다르면서도 같음' 과 '같으면서도 다름'의 도리를 잘 알아야 한다

는 말이 나온다. 서로 전혀 입장이 다르면서도 결국은 하나의 같음을 지향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너와 내가 서로 크게 다르고 그래서 다투지만, 결국은 하나의 큰 같음을 지향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말살하려는 식의 투쟁이 지양되고, 투쟁을 하되 서로 배우고 또 서로 보완하는 동행이 가능해진다. 그러한 투쟁이야말로 서로를 발전시키는 투쟁이다. 그렇게 다투면 그 다투어야말로 올바른 성장을 위한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 이제는 우리의 정치인들이 그러한 다투는 도리를 기본 자세로 바로 삼아야 할 때이다.

식민지 지배와 민족분단이라는 아픈 역사를 딛고 세계에 손꼽히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그 저력의 바탕은 국민일 것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어야 충분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힘을 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일 것이다. 이러한 저력이 있는 국민에 정치만 한걸음 더 높은 차원으로 이루어졌

면 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국민의 안타까움을 바로 보아야 한다.

원효 스님은 모든 종파의 이론들이 각각 달라도 부처님의 한 뜻으로 귀일한다고 하지 않으셨던가? 오늘의 정치인들이 꼭 귀 기울여야 할 말이다.

각각의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라는 큰 목적에 귀일한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물론 그 그리는 목적의 그림이 서로 다를 수도 있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동지라는 의식이 바탕이 된다면, 서로의 그림을 비교해가면서 보다 온전한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의 다투어야 아무리 격렬한들 어떠랴. 동지라는 의식 속에서, 반목을 하지 않고 비열한 수단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서면 함께 발전하는 계기인 것을... 그런 의식의 기반이 있어야만 이 땅의 정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 아니겠는가? 이긴 자는 이긴 자대로, 진 자는 진자대로 함께 반성하여 한 차원 높은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앞날을 기대한다.

社說

조계종 '50년 얼룩' 교훈 삼자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정통성을 간직한 조계종이 4월 11일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10일 조계사 법당에서 열린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법회는 조촐했다.

정화의 주역으로 대법원장 앞에서 활북했던 6비구 가운데 한분인 원로 의원 월담 스님이 50년 영욕의 조계종사를 생생히 전달해 주 그나마 다들스 러웠다.

1700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 때문일까. 과거 50주년을 통해 미래 50주년을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일에도 프로그램도 홍보도 너무 부족했다.

4-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록물 전시회에 이어 25일에는 불교사회연구소 주관으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가을에 있을 결집대회

와 조계사 육조해는 대사 좌상 봉안을 빼면 조계종은 종단출범을 즈음한 상반기를 너무나도 조용히 보낸다. 일반 기업은 20주년, 30주년만 되도 증권기업에 들어간다. 사람의 나이 50이면 중년이다. 지원명(天命)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알아 그에 순응하거나,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원리를 안다고 한다. 조계종이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대중의 바람을 아는지는 지나봐야 알 일이다.

선거에서는 날마다 좋은날이라 매일이 같다고 했지만, 세속에 사는 불자들이로는 50주년 기념일이 조촐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정화·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얼룩진 조계종의 과거를 되짚어 보는 열매가 글로써 한국불교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불자국회의원에 바란다

4·11 총선이 끝났다. 300명의 당선자가 금빛지를 새로 달고 국회로 입성하게 됐다. 이들 가운데 불자는 단 40명, 비율로 따지면 13.3%이다.

선거가 아무리 투표자 개개인의 이념의 기울기와 인물의 호불호에 따라 갈릴 일이라고 하지만, 불자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은 한국불교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 씁스름하다.

흔히 2000만 불자라고 말한다. 불자 수는 인구대비 절반인데, 왜 국회의원은 소수에 머무는지 불교계는 대책을 세워야한다.

일이 터지고 나면, 문제가 제기되면 불교계는 임버릇처럼 '인제불사'를 말한다. 그러나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은 단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때 뿐이다. 습관 같은 말은 흡사 틱중후

군 환자처럼 순간 터져 나오기만 할 뿐 만성화 되어 이젠 그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래서는 안된다. 다종교사회 이웃종교의 선교 공세에서 불교가 살아남으려면 자생과 자위력을 갖춰야 한다. 불교를 알고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호법신자들이 재가자의 모습으로 사회 곳곳에 있어야 한다. 불교계부터 변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이 바로 클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불자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지 소수라는 핑계로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정책 입안을 태만히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불자국회의원 40명 개개인의 건승을 기원한다.

사부대중 칼럼



김웅덕 한양대 교수 조계종 성보 보존위원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한국 문화가 자존심을 자각한 문화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다. 사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체로 일상에서 벗어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날 때 쓰이는 말인데 여기서는 역설적인 의미로 표현됐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연등회가 이제야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사건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종목들 가운데 연등회만큼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가 1975년경에 시작됐으니 거의 40여년 동안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 1차 책임은 불교계와 종단에 있다. 문화재 지정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시대상황이 변해 배타적 종교의 위상이 끊임없이 가해지니까 제도의 힘을 빌려서 전승하려고 한 것이다. 물론 현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면하기는 어

렵게 됐다.

여기서 불교계의 책임론을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왜냐하면 연등회 말고도 불교의 무형문화 가운데는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듬어서 등록해야할 불교 문화재로는 언뜻 생각나는 것만 들어도 다비장, 탑돌이, 지하장, 사찰음식, 점안과 복장예례 등이 있다.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기회로 숨어 있는 문화재를 조사하고 학술적으로 분석해 복원 전승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등회의 내용은 부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관불(육불)의례, 부처님 말씀을 듣는 법요식, 부처님 탄생을 다함께 축하하고 한 마음이 되는 연등행렬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관불과 법요식이 종교 본연의 의식이라면 제등행렬은 축제적 성격이 강한 행사의 모습을 띤다. 연등회가 잔치의 성격을 갖는 것은 신라 때부터의 일이다.

<삼국사기>에 경문왕(866)과 진성왕(890)은 황룡사에서 연등을 관람하고 백관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는 왕건이 '훈요십조'에서 불교를 국가의례로 시행한 이후 역대 왕들이

연등회에 참석하고 백성들과 함께 즐기 기록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오늘의 연등회를 소연등회와 대연등회로 나누어 시행하는 구성도 이미 고려 때부터 있어온 전통이다. 소연등회날 왕이 개성 봉은사나 흥왕사로 행차했다가 돌아올 때는 날이 어두웠으므로 이때 제등행렬이 있었을 것은 당연하다. 왕궁에서 절문까지 요즘 줄에 등을 매달 듯 채봉을 얹어 꾸미고 채산(등으로 장식한 산)과 화수(등을 매단 나무)를 설치하여 길을 밝혔다. 거리가 대낮처럼 밝고 행렬 중에는 백희잡기(다양한 놀이)가 행해졌다. 백성들이 길에 쏟아져 나와 함께 이 광경을 보면서 즐기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이러한 모습은 '관경변상도'나 '낙성연도' 같은 불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등회가 잔치로서 기능하고 온 나라 백성을 하나로 엮어 주는 끈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조선조는 억불숭유 정책을 펼쳤으나 이미 세시풍속으로 굳어진 연등회는 왕실과 유학자들도 함께 즐겼다. 서거정, 성임, 맹사성 같은 유학자들이 종로 거리에 밝힌 연등과 남산에 올라 서울 장안에 호화롭게 수놓은 등을 보고 젊은 시들이 전하고 있다. 조선 후기 18세기 무렵의 <동국세시기>에 보면 초파일 전날부터 아이들이 깃발을

들고 마을을 싸돌아 다니는 '호기놀이'부터 종로 일원에 장식한 수박등 팔모등 봉황등 주마등 같은 온갖 등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온 모습에서 오늘날 제등행렬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연등회는 그 역사가 천년이 넘는 가장 오래된 불교 의례이면서 우리 민족과 함께 자라는 축제 마당이었다. 일각에서 연등회가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제 역사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아니면 역사공부를 하지 않은 무지의 소치다.

해를 거듭할수록 연등회에 참석하는 외국 관광객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유럽의 관광객 중에는 해마다 가족 단위로 연등회에 맞추어 한국을 방문하는 가족도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연등회가 불교의 의례를 넘어 온 나라가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국가의 축제가 되고 세계의 자비 축제가 되도록 가꾸는 일이다.

지방은 지방대로 연등회가 고유한 색깔로 전승되도록 연등회 보존회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다른 문화재의 경우 어떤 하나를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면 유사한 다른 문화재는 설 곳을 잃어 소멸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꼭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 | |
|--|------------------------------------|
|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 이시홀 연불닷컴 www.hyunbul.com |
|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
| |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자)



종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자 랑

≡ 입종안내 ≡

◆ 입종구비서류

- 승려, 법사, 사암등록 신청서 1부
- 주민증 앞 뒤 복사 1통
- 총본산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 수월사
- 종정스님 주석 사찰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 관음사
- 총무원 : 전화 063)583-8807 / 팩스 063-584-4153 / Mobile 010)6478-1569

종정 큰스님의 법성계 친필휘호 보급 안내

사업장이나 집안에 법성계를 걸어두고 해인도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체만민이 성취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며 일체 집귀가 집범하지 못하는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스님의 달마도가 들어 있는 법성계 휘호는 신묘한 기가 있습니다.

- 보급가 15만원 (해인도 2매+종자 1매)
- 계좌 : 농협 351-0247-1334-03 (예금주: 우리불교조계종)
- H·P 010-6478-1569



海印及十波羅密圖

해인도 10.5×17.5cm



법성계 38×145cm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한다.